



전북체육회가 전북도내 곳곳에서 열리는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소년체전 성공 개최 만전

도체육회, 전북도·도교육청·경찰청·14개 시군 등과 협업체계 구축
대진 추첨 마무리·종목별 전력분석... 전북, 토너먼트 1번 시드 받아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가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6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익산 등 도내 14개 시·군에서 본산 개최되는 소년체육대회 준비에 한창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년체전은 지난해 성공적으로 개최된 제99회 전국체육대회와 똑같은 '비상하리 천년 전북, 하나되라 대한민국'이라는 구호로 2만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진다. 도 체육회는 이 대회를 문화체전, 참여체전, 경제체전, 안전체전, 희망체전으로 치르기위해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 전북경찰청, 14개 시군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각 종목이 열리는 49개 경기장에 대한 공·승인을 완료한 상태이며 경기용 기구와 심판과 운영요원, 보조요원 등 대회 진행요원에 대한 수요를 파악중이다.

또 최근 대회 첫 단추로 꼽히는 대진 추첨이 마무리됐고, 이에대한 종목별 전력분석이 현재 이뤄지고 있다. 이번 대회 개최지인 전북은 모든 토너먼트 종목에서 1번 시드를 받았다. 도 체육회는 향후 지역별(종목별) 경기장 최종 점검과 선수 부상 방지를 위해 직원과 선수 트레이너를 파견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년체전 성공개최 및 기관별 협업을 위한 체계적 연구와 조사 ▲스포츠 관련 성평등과 인권 교육 등의 제도화와 입체적 프로그램 개발 ▲국내외 협력 연계망 구축 등을 통한 스포츠 인권과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의 임무가 수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은 혁신위가 발표한 권고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기구 설립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말까지는 법적 근거·인력·예산 확보해 2020년부터는 기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위는 관계기관의 권고 이행이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적극 점검할 예정이다. /뉴스

“체육계에서 독립된 인권보호기구 설립해야”

문체부 스포츠혁신위 권고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체육계 내부에서 독립된 '스포츠 인권 보호 기구' 설립을 권고했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7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권고안을 밝혔다. 빙상종목 국가대표 조재범 코치에 의한 선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지난 2월11일 출범한 혁신위는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와 증진 방안, 국가 스포츠 정책의 체계를 혁신하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왔다. 전임회의 5차례, 본과회의 11차례, 유관기관 업무 협의 5차례 등을 한 뒤 이번 권고문을 마련했다. 이번 1차 발표에서는 스포츠 분야의 성폭력과 아동 학대 등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제대로 된 제도적 기제를 마련할 책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필요한 개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체육계 내부로부터 독립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스포츠 인권 기구 설립을 주문했다. 이 기구는 체육계와 분리된 별도의 신고·접수·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365일, 24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와 상담 내용의 비밀과 익명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아동·장애인·여성 등을 위한 전문상담 창구도 개설하도록 했다. 또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는 치유 상담과 법률, 의료 지원까지 충분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혁신위는 또 이 기구를 통해 ▲스포츠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을 위한 정례적 연구와 조사 ▲스포츠 관련 성평등과 인권 교육 등의 제도화와 입체적 프로그램 개발 ▲국내외 협력 연계망 구축 등을 통한 스포츠 인권과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의 임무가 수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은 혁신위가 발표한 권고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기구 설립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말까지는 법적 근거·인력·예산 확보해 2020년부터는 기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위는 관계기관의 권고 이행이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적극 점검할 예정이다. /뉴스

배드민턴 공희용, 국제대회 우승

뉴질랜드 오픈 월드투어서 김소영과 한팀으로 일본에 2:0 완파

전북은행 배드민턴 여자실업팀 소속 공희용이 국제대회에서 '금빛 스매싱'을 날렸다.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는 최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린 '2019 뉴질랜드 오픈 월드투어 슈퍼 300 대회'에서 여자복식 경기에 출전한 공희용-김소영(인천국제공항)이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공희용-김소영은 지난 2월 스페인마스터즈에 이어 올 시즌 두 번째 우승을 차지한 것이다. 여자복식 세계랭킹 30위인 공희용-김소영은 결승전에서 세계랭킹 4위인 미사키 마츠토모-야야가 타카하시팀을 2대0으로 완파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공희용-김소영은 '일본 킬러'의 모습을 보였다. 16강과 8강, 4강 모두 일본 팀을 만나 승리를 거뒀기 때문이다. 전북은행 배드민턴 김효성 감독은 "공희용을 비롯해 앞으로도 선수들이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김소영과 공희용(사진 오른쪽).

전개공 육상팀, 전국종별경기 성적 우수

금1·동3개 등 획득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 육상팀이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6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최근 충북 충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48회 전국종별육상경기대회'에서 전북개발공사 육상팀은 금메달 1개와 동메달 3개 등 총 4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밝혔다. 특히 멀리뛰기 종목에 출전한 김민지는 6m80을 뛰어 정상 자리에 올랐다. 400m에서 3위를 기록한 김지은은 400m 허들에서도 동메달을 차지했고, 400m 계주에 나선 김지은과 김민지, 조은주도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북개발공사 김우진 육상 감독은 "너



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수들의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훈련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태권도 시범단, 마실축제서 춤 퍼레이드 '금상'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 태권도 시범단은 제7회 부안 마실축제 마실길 춤 퍼레이드에 참가해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범단은 부안을 상징하는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절도 있는 동작과 차별화된 연출로 관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다. 비전대 태권도체육학과장 김순정 교수는 "주말에도 쉬지 않고 늦은 시간까지 연습을 한 시범단원의 노고를 격려하며,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 각종 대회 및 행사에



서 좋은 기량을 선보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은성 기자

2019. 5. 11(토)~12(일) 황토현 전적지 및 정읍시 일원

10일(금)은 전야제가 진행됩니다

연차	일시	프로그램	장소
10월(금)	19:00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축하공연(전야제)	야외특설무대
	11:00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기념식-영상중계	야외특설무대
	12:30	정읍 무형문화재 발표회 - 판소리	야외특설무대
11월(토)	17:11	정읍 방문의 해 맞이 '수제천 보존회' 공연	야외특설무대
	18:00	동학농민혁명 UCC 수상식 시상식 및 영상상영	야외특설무대
	18:30	황토현에서 울리는 511인의 함성	야외특설무대
	18:30	제52회 기념제 기념공연 및 제9회 동학농민혁명대상 시상식	야외특설무대
	20:00	특별기획공연 - 감옥백성	야외특설무대
12월(일)	09:00	제22회 황토현 전국농악경연대회	사발동문 광장
	10:00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전국역사퀴즈대회	야외특설무대
	10:00	무명동학농민군위령제	고부면 신중리
	13:00	정읍생활문화예술동호회 '녹두꽃 향연'	야외특설무대
	13:30	제13회 황토현전국청소년토론대회 결선	교육관
14:00	구민사 갑오선열 제례 및 위패불안례	구민사	
15:30	나누매기와 함께하는 정개발팔페스티벌	야외특설무대	

주최 | 정읍시 주관 |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